

名前:

이제 이 시대는 인터넷이 너무 많이  
보급되어 이제 더 이상 종이도 필요 없  
다고 생각될 정도다. 나만해도 집에서  
신문을 보기보다는 인터넷뉴스를 볼 때가  
더 많다. 게다가 인터넷 뉴스는 빠르기  
도 하거나 여러 종류의 신문은 동재  
로 읽을 수 있기때문에 우익과 좌익의  
생각은 한 자리에서 다 읽을 수 있다는  
장점이 있다. 그러나 나는 이 시대에  
뒤처졌다고 한 자로 모르지않 신문, 잡지  
는 필요하~~야~~<sup>여</sup> 있다고 생각한다. 종  
이 이 인터넷 독서물은 읽는 것을 마치  
영화는 집에서 다들 받아 컴퓨터로 보면  
되는데 일부러 영화관에 가서 그 감동  
을 느낄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. 신  
문, 잡지, 책 등 단지 종이 위에 인  
쇄된 글자의 배열이 아니다. 시인의 글씨  
나 위치는 그 신문사의 성향을 알수 있  
는 중요한 정도가 되어 잡지의 인태용  
지를 보면 잡지에 실려있는 물건이 질

을 느낄수있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. 책도  
그렇다. 책판한 문자만으로는 전달할수 없  
는 분위기를 종이로 만해주는 경우도 있  
다. 이 인터넷이 우리 생활을 지배하는  
시대에도 사람들은 아직 책방이 가서 여  
러가지 책들의 기분을 읽고 느끼는데는  
그 나름의 운치가 있기때문일 것이다.  
나는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하면은 본  
여지는 문자의 집합만으로는 다 읽을수  
없는 그 기분은 종이에서만 느낄수 있기  
때문이라 말하고 싶다. 즉 나는 전자북이  
생기면 책방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 
나는 일시적으로 전자북시대가 다도 인터  
넷이나 컴퓨터로는 절대 전달수 있는 종이  
를 넘기면서 그 내용을 등백 느낄수 있는  
것은 독서미안 면 결된 행복이기이 책방이  
없어지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한다.  
아아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해도 여  
러 옛날이야기를 읽으며 느낀 행복을  
항상 전해주는 종이인쇄물은 인츰가

1800字

이 절 때까지 필요 하라고 생각 한다.